



이 시대의 진정한 아침형 인간 니트젠의 베스트 부지런맨, 김형준 과장

새해는 다짐과 계획에 그 의미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떠나할 것 없이 일년지대계를 세우고 굳은 각오로 첫 달을 맞이한다. 배해 작심삼일의 허망함을 반복해 왔다면 올해는 지킬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도전해 보자. 가령 올해는 매달 10분씩 일찍 일어나보는 것은 어떨까. 허둥지둥 부산하게 시작했던 하루가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며 매달 조금씩 아침형 인간에 가까워지는 보람도 느낄 수 있다. 생체인증 시장의 리더 니트젠의 기술개발팀 김형준 과장은 타고난 아침형 인간이다. 이른 아침 컴컴한 회사에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그의 출근 시간은 아침 7시. 새벽 5시면 잠에서 깨 차분히 아침을 먹고, 한산한 버스에 몸을 실어 출근하는 것이 그의 아침 풍경이다. 대신 이른 시간에 잡 자리에 드는 것이 아닐까 했더니 그의 취침 시간은 여느 사람들과 비슷한 밤 11시다.

“습관입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제게는 늦잠을 자는 것이 오히려 힘든 일이죠. 회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을 어떻게 시작해 어떤 습관을 들였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이 결정되죠.”

입사 후 그가 처음 만난 직속상사는 부지런맨에 바깥기는 규칙맨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의 방침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다. 엄격한 상사 아래서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을 시작한 그에게 이 타이트한 생활은 습관으로 굳어졌다.

그렇지만 그는 팀원들에게까지 자신의 생활패턴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출퇴근 시간보다도 일의 집중도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그에게 일의 집중도가 높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남들이 채 출근도 하기 전이다. 김형준 과장의 이런 생활패턴은 기술 개발의 성과로 이어져 니트젠이 세계 최초로 생체지문 기술을 개발하는 데 혁신적인 공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 지문인식 도어락의 인베디드 프로그램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주로 길으면서 아이디어를 검색한다.

“어름에는 반포의 집에서부터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회사까지 걸어서 출근합니다. 걷다 보면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죠”

추운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탄다는 그는 매일 아침 버스 안에서 그와 비슷한 부지런맨들과 만난다. 대부분 같은 시각에 버스를 타기 때문에 자주 마주치는 얼굴들이다. 차가 막히지 않고 타는 사람이 적어 마치 직행 버스를 탄 듯 단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새벽 출근의 장점 이란다. 술을 마시지도, 그럴싸한 취미도 없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는 인생이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김형준 과장. 그동안 알박에 모르던 그의 새해 소원은 올해 여직원들이 많이 입사해 사내커플에 도전하는 것이다. 2006년에는 이 부지런맨의 한결같은 일상이 핑크빛 설렘으로 흔들릴 수 있기를 바란다.